

개 회 사

2024. 9. 6. (금) 09:50 (5분)

은행연합회(2F)

이 자료는 보도 편의를 위해 제공해 드리는 것으로서
실제 발언은 자료와 다를 수 있습니다.

금 융 감 독 원
원 장 이 복 현

I

인사말

나마스떼, 안녕하십니까?

금융감독원 원장 이복현입니다.

오늘 주한 인도대사관과 금융감독원, 금융 유관협회들이
공동 주최하는 금융회사 인도 진출설명회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와 환영의 인사를 드립니다.

특히 귀중한 시간을 내어 먼 길을 와주신

Ruchi Chojer^{루치 초제르} (증권거래위원회) 위원님,

Manoranjan Padhy^{마노란잔 파디} (중앙은행) 본부장님,

Manisha Mishra^{마니샤 미슈라} (중앙은행) 본부장님,

Rajiv Dhar^{라지브 다르} (국립투자인프라펀드) 투자총괄님,

Mohamed Ashraf^{모하메드 아슈라프} (재무부) 비서관님이

방한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아울러 이번 행사를 위해 물심양면으로 지원해 주신

아밋 쿠마르(Amit Kumar) 주한 인도대사님과

조용병 (은행연합회) 회장님을 비롯한 각 금융협회 회장님,

그리고 관계자분들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Ⅱ 인도의 잠재력 및 설명회에 대한 기대

인도는 오늘보다 내일이 더 기대되는 나라입니다.
세계 최대의 인구대국으로
현재 세계 5위 규모의 경제력을 자랑하고 있으며,

특히 디지털 인프라의 고도성장,
정부의 적극적인 개혁 정책 등을 기반으로
글로벌 생산기지로서 실물경제를 견인하며
금융산업 또한 비약적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올해 초 세계경제포럼에서는
인도가 5년내 세계 3위의 경제대국으로
성장할 것이고,
향후 세계 경제의 미래를 형성하는데
결정적 역할을 할 것이라고 예상한 바 있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설명회를 통해 우리나라 금융회사가
성장성 있는 인도 금융시장과 투자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향후 인도 진출을 위한 구체적인 청사진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Ⅲ 한국 금융회사의 인도 진출 및 성과

우리나라 금융회사의 인도 진출은
1996년 신한은행 뭄바이지점을 시작으로
현재 12개 금융회사, 25개 점포로 확대되었습니다.

이들의 최근 2년간 실적을 살펴보면,
연평균 9천만 달러에 달하는 당기순이익을 거두고,
총자산 증가율도 연평균 11.2%를 기록하는 등
광목할만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현지 점포 뿐만 아니라
인도 금융회사에 대한 지분투자*,
한국 자본 100%의 자산운용사 설립** 등

* 신한은행, 인도 학자금대출 1위 금융회사인 크레딜라(Credila) 지분 인수 ('24.4월)
** 미래에셋자산운용, 인도내 유일한 독립 외국자본(100% 한국 자본) 운용사 운영 ('19.4월)

다양한 방법으로 현지화를 추구해 나가며
인도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높여가고 있습니다.

Ⅳ 금융회사 인도진출 기대효과

인도는 현재 우리나라 금융회사들이
가장 진출을 확대하고 싶은 국가*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 금융사 해외진출 계획 : ① 베트남(12건), ② **인도(11건)** ③ 인도네시아(5건) 등

특히 우리 금융회사들은
인도 최대 도시인 뭄바이와 수도 뉴델리를 넘어서
글로벌 생산기지인 첸나이, 푸네 등 인도 전역으로
영업을 확장해 나가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인도 진출 확대는
두 국가 모두에게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아시다시피 인도에는 현대자동차, LG전자 등
우리나라 굴지의 기업들이 많이 진출해 있습니다.

이에 우리나라 금융회사 진출이 확대되어
금융부문의 자산이 기업에 대한 투자로 이어지는 등
금융과 실물경제가 복합적으로 발전한다면

우리나라 기업과 금융산업에는
새로운 수익원과 성장 기반이 마련되고

인도에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함께
인도 경제의 역동성을 촉진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V 맺음말

내외 귀빈 여러분,

한국과 인도는 1973년 수교 이후
견고한 협력관계를 유지하여 왔으며,
이제 금융분야로 협력관계를 확장해 나가야 합니다.

인도의 풍부한 자원과 인력이
한국의 경쟁력 있는 금융서비스와 결합된다면
양국의 금융산업이 물리적 거리를 극복하고 함께 나아가
아시아 금융시장의 강자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이는 홍콩과 싱가포르로 대변되는 역내 금융시장에
신선한 바람을 일으킬 뿐만 아니라
아시아 금융시장이 보다 균형감있고
견고하게 발전하는데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 확신합니다.

인도 건국의 아버지인 마하트마 간디는
“미래는 우리가 오늘 무엇을 하는가에 달려 있다”는
명언을 남겼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양국이 함께 번영하는 미래를 위한
초석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